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사고... 5명 사망

1명 전신 화상... 1명 경상
50분만에 초기진화 완료
지상층 건물 1동 모두 타



1일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정문 앞이 통제 중인 가운데, 구급차 한 대가 정문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필뉴스

1일 오전 11시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우주 및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현재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했고, 1명이 전신화상을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폭발음이 들렸다", "연기가 많이 난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7분께 소방 대용 1단계를 발령한 뒤 인력 100여명과 장비 30여대를 투입해 11시49분께 초진화를 완료했으며, 오후 1시17분께 불을 완전히 꺼졌다. 오후 1시18분에는 소방 대용 1단계가 해제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폭발은 56층 세척공실에서 발생했으며, 사고로 지상 1층 544㎡ 면적의 건물 1동이 모두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사업장 정문 앞에서 열린 유성소방서·유성구보건소 합동

브리핑에 따르면, 근무 인원 7명으로, 이중 사망자 5명은 모두 폭발한 작업장내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부상자 2명은 지역으로 탈출해 구조됐다. 이들 중 전신화상 중상자는 입원 치료 중이다, 경상자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구급했다.

사망자의 경우 시신의 훼손 상태가 심해 신원 파악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해당 사업장은 항공기 엔진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우주 발사체, 위성 시스템, 자꾸로 및 정갑차

등 지상 무기 체계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통합 방산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가 보호시설로, 경찰과 소방 당국은 관계자로부터 건물 도연 등을 확보해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연필뉴스

경기남부청, 지방선거사범 33명 송치 금품수수 23명... 공무원 선거관여 7명

249건 접수... 476명 수사 중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선거사범 33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경기남부청은 1일 전체 기간간 담회를 열고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현황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249건으로, 수사 대상자는 592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5월 10일 기준 132건, 432명과 비교해 각각 117건, 160명 증가할 수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39건에 연루된 116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가운데 33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83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 처리됐다. 송치된 33명을 위반 유형별로

보인 금품수수가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무원의 선거 관여 7명, 흑색선전 1명, 선거촉박 1명, 선거운동 기간 위반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은 210건, 476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선거 기간 중 흑색선전으로 구속된 인원은 총 2명이다.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지난 12일 미공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성남시의원 예비후보를 향해 500리까지 생수병을 던진 30대 회사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 송치됐다. 광택에서는 지난 24일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때린 40대 유류버거가 체포돼 구속됐다. 수원=임영민 기자 lim@siminilbo.co.kr

두존쿠·버터떡 8만개 불법 제조·유통

식약처, 4명·법인 1곳 적발
커피 프랜차이즈점들에 판매

온라인 등에서 인기를 끈 두바이존두키(두존두)와 상하이버터떡을 무등록으로 제조·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약처와약품안전처는 두존두와 버터떡을 무등록으로 제조·유통한 업자 4명과 법인 1곳의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불법 제품 약 2만 5000개를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 유통안전과장은 "두존두와 버터떡이 불법 제조·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무등록 제조업자 A씨는 올해 2~3월 제조 장소를 옮겨 다니며 두존두 약 7만개를 생산해 B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를 자사 생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업자들에게 약 5만5000개를 판매했다. 또 다른 무등록 제조업자 C씨는 지난 3월 초부터 약 한 달간 휴업중인 휴게음식점에서 버터떡 약 1만개를 불법 제조해 커피 프랜차이즈 D사에 D씨에게 공급했다. D씨는 해당 제품을 가맹점 8곳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민 기자 mmh@siminilbo.co.kr

'여성 흥기살해' 20대 긴급체포 경찰, 조사 중... 교제 살인 정황

20대 여성을 흥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1명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검정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서울 강동구에서 패싸움 20대 여성 B씨를 흥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오전 5시40분경 경찰에 잡혔다.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한 뒤 정확한 범행 시간·장소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소문 고가 철거시공사 4명 입건... 경찰 "지방선거와 무관"

안전책임자등 피의자 전환
서울시 수사 확대 가능성도

경찰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정호 서울경찰청장은 1일 서울경찰청 정례간담회에서 시공사 중하의 현장소장급 직원과 안전관

리·책임자 등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감시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공사 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안전관리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입건된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를 규명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현재 참고인 신분인 시공사 관계자들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박 청장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필요한 조사를 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이 희생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고가 붕괴 직전까지 열차 운행이 차단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박 청장은 "결과적으로 사고로 이어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29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노골적 선거 개입이자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청장은 "선거 개입 의도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초기 증거 확보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다른 고려 없이 수사 필요성에 따라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최대 '매출액 10%'

개보위, 시행령 개정안 마련
선제 투자맨 최대 40% 감경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인력·설비 등에 선제적으로 투지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40% 감경하고,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정 개인정보 보호

법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정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와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같은 위반행위를 3년 이내 반복하거나 1000만원 이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

은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 정도와 피해 규모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영세·중소기업이 경미한 위반행위를 시정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는 요건도 마련했다. 여영준 기자 yyy@siminilbo.co.kr

前 연인집 굴착기 물고거 "부수겠다" 협박

60대 구속... 폭행 혐의도
"만나주지않아 범행" 진술

건실용 굴착기를 물고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협박과 폭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특별경찰서는 가중폭력처벌법 위반(특수협박)미수·특수계물손괴미수·특수협박,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8일 제주시 조창읍에 있는 전 연인 B씨(여, 60대)의 주거지에 굴착

기를 물고 찾아가 재회를 요구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날 오후 6시10분 B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치로 귀가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9시4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건실용 굴착기를 물고 다시 B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집을 부수겠다고 위협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말리려 B씨의 40대 아들을 무력으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긴급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박진식 기자 zini@siminilbo.co.kr

화원농협 이맘은김치

화원농협 이맘은김치 유튜브, SNS 채널에서는 화원농협의 소식이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

- 화원농협 이맘은김치 쇼핑몰 (www.해남화원농협.com / www.hwkimchi.com)
- 농협몰 (www.nonghyupmall.com)
- 이마트몰 (emart.ssg.com)
- 해남미소, 남도장터
- 쿠방, G마켓, 11번가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https://smartstore.naver.com/hwkimchi)

오프라인 |

- 농협하나로클럽 (양재, 장동, 상남, 고양, 삼송, 수원, 목포, 광주 등)
- 신세계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랜드리테일
- 이마트몰 (emart.ssg.com)
- 해남, 목포, 영암, 완도, 진도지역 학교급식
- 해남 관내 관공서 및 병원
- 목포, 부산대리점

이맘은김치 상품
